



체결식에 참석한 문성유 캠코 사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

캠코, 한전 지사 사옥 개발로 공공기관 재산 위탁개발 첫발 노후 한전 관악동작지사에 약 800억원 투입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1월 12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문성유 캠코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과 약 800억원 규모의 한전 관악동작지사 부지 활용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캠코가 추진하는 첫 번째 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캠코는 한전과 협력해 한전 관악동작지사(1977년 준공, 4층) 부지에 사업비 약 800억원을 투입, 연면적 3만2천13㎡, 지상 20층·지하 6층 규모의 창업지원 시설 및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

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을 2025년 3월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캠코는 사업비 조달·건물 신축을 맡아 필요 시설을 적기에 공급, 임대 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제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한전은 초기 투입자금 없이 최신 복합건물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등에 창업지원 시설을 공급할 계획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공기관 위탁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법령 개정 등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 위탁개발 활성화를 통해 공공자산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2005년부터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37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재 약 1조1천억원 규모 33건의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노후·저활용 공공기관 보유재산까지 개발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필요 시설 확충 및 재산 가치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문성유 캠코 사장